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공모적 갈등의 근거로서 동독과 서독의 사회화*

한스 요아힘 마쯔
할레 디아코니 병원 정신치료 및 정신신체의학과

“냉전”과 함께 독일이 두 개의 국가로 정치적 분단을 겪으면서 심리적 분열과 투사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동독인과 서독인은 공식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다. 한 쪽에는 약탈적 자본주의가, 다른 한쪽에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동서독인들이 서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 이들 평가는 투사에 의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서독인은 동독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그 판단의 척도가 된 것은 소비 가능성, 여행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권 등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동독인의 대다수는 서독인의 삶을 이상화했고, 이때 지배적인 것은 물질적 관점이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형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단편적 시각은 1989년 “평화로운 혁명”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동인이 되었다. 초기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민주화가 목적이었으나, 심리적 세력은 빠르게 통일을 강요했다. 양 독일의 통일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관점에서 서독의 방식이 관철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일은 단순히 구동독이 서독의 정치 및 경제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이루어졌다(Maaz, 2003).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의 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 2007년 4월 18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후원한 한독 학술 심포지엄 “통일, 그 인간과 제도의 드라마”에서 발표된 원고.

초기에 동독 주민들은 큰 희망과 희열, 해방감, 창조적 활력 등을 느꼈다. 사람들은 “전환기의 열기”에 도취된 상태였다. 단편적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없지 않았다. 동독 주민 다수의 굳은 의지, 세계 정치 상황, 동독의 경제적 파탄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심리적 상황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고려된 바가 없다.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모두 외적 조건이 신속하게 평준화되리라는 희망(콜 수상: “풍요로운 풍경”)을 안고 있었다. 많은 동독인들은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었고, 서독인들은 사회 체제를 놓고 벌인 역사적 대결에서 스스로를 승자라고 여겼다. 서독 체제에 대한 이상화와 동독 체제에 대한 평가절하는 통일 낙관론의 순진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현실은 곧 사람들에게 실망과 각성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동독 지역 사업장이 문을 닫고 실업이 (25%까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속화하였다.

동독인들은 자유와 사회적 안정 사이에서 차별과 모순에 맞닥뜨려야 했다. 많은 동독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삶의 성과와 직업 능력, 사회적 견해가 갑자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뼈아픈 현실을 감수해야 했다. 대다수 동독인들이 전환 과정에서(Schluchter und Quint 2001) 다시 학생이나 견습생으로 돌아가야 했고, 모든 측면에서 서독의 근로와 삶의 형태를 받아들여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쌓은 경험은 아무런 소용도 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했다. 지금까지의 공산주의 엘리트들은 거의 완전히 서독 엘리트로 대체되었다. 정치, 행정, 대학, 법원, 관공서, 특히 경제계 등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두머리”를 차지한 것은 서독인들이었고, 동독인들은 그들의 부하가 되었다.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구동독에는 없었거나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직업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예를 들면 세무사, 재무사, 보험 설계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직업이 이에 해당되었다. 은행, 보험회사, 고용공단, 건강보험공단 및 서구 민주주의의 다양한 기관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고 이들 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배워야 했다.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다양한 직업 전환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했으며, 부분적으로 새로운 직업이나 업무를 습

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심리적, 정신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각성과 실망의 단계는 생존의 불안과 사회적 불안, 가치절하의 경험, 모욕감 등으로 점철되었다. 이 단계에서 선입견이 생겨나게 되었다.

동독인들은 서구화를 기뻐하고 감사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Jammer-Ossis(불평만 하는 동독인)”라고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선입견과 함께 서독인들은 특히 그들이 경쟁 사회에서 타인에게 내비치거나 품을 수 없었던 두려움, 불안감, 열등 의식 등의 억압된 정신적 감정을 동독인들에게로 돌렸다. 다른 한편으로 서독인들은 “Besser-Wessis(잘난 척하는 서독인)”이라 불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때로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서독인들을 비난하는 말이었다. 또한 이는 동독인들이 자신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시키지 못했던 서독인들의 특성을 투사적으로 비판한 것이기도 했다. 사회주의는 동독인들에게 집단 의식에 적응하고 순응할 것을 요구했고 개인주의나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약 2000년부터 동독인의 적응기가 시작되면서 동독인과 서독인 사이에 비판적 거리감이 생겨났다. 사회적 체제 변환 과정은 상대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다. 동독 사회가 전환기의 승자와 패자로 분열되는 양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실업자와 사회급여 수령자의 수는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인프라의 발전 양상이 이분화되면서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떠나가고 경제가 파괴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 소위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는 곳도 있었다.

동독인들의 적응 문제는 특히 동독과 서독의 상이한 사회화 과정에서 기인하며, 정신적 가능성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데서 기인한다. 동독인들은 권위주의적 교육을 통해 순종, 정치 이데올로기 종속, 집단에 편입, 훈육과 질서, 서독에 대한 적대감 등을 키웠다. 서독인들은 시장경제의 법칙에 따라 특히 자부심, 관찰 능력, 이기주의적 개인화 및 경쟁력 등을 발달시켰다. 자신을 능숙하게 표현하고 자기 마케팅을 할 줄 아는 것은 서독 사회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매우 중요한 능력이었다. 이

것은 조심성, 겸손함, 신중함 등이 중요한 가치로 통했던 동독 사회에서는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 동독과 서독의 이러한 단편적 사회화 형태를 거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독의 것은 동독의 것보다 우세하다고 무비관적으로 평가되었다. 전환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동독인들 내면의 정신적 변화 없이 외적인 변화만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응은 사회적 성공과 직결된다. 직업, 수입, 승진 가능성, 사회적 위신 등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내적 변화 없는 외적 적응은 그것이 성공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심리 사회적 소외로 남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일이 권위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구동독 시절의 권위적 사회화 결과는 실제로 문제가 되기 보다 오히려 더욱 굳어지는 양상을 띠었다. 심리 역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권위적 교육을 통해 나타난 정당한 공격성, 정신적 상처 및 모욕감이 진정, 해소 및 통합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 기간 동안 발달할 수 있었던 반항과 개인화는 통일 정책을 통해 다시금 제한되었고, 이는 많은 동독인들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성숙을 저해했다. 전환기의 승자들은 이러한 발달 장애를 물질적 가치로 상쇄할 수 있었다. 소비, 소유, 여행 및 다양한 여가 등. 전환기의 패자들은 자신들의 “감정 정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소할 우려가 있다.

- 정신적 및 정신 신체적 질환
- 자살
- 중독
- 극단주의(예: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극우주의)
- 폭력과 외국인 적대감
- 범죄

실질적으로 통일은 동독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초래했다.

- 높은 실업(2004년 동독 지역 실업률은 20.1%, 서독은 9.4%였다. 이때 동독

- 지역의 장기 실업자는 44%에 달했으며 서독은 35%였다.) (Geißler, 2006)
- 출산율 하락(구동독 시절에 비해 55%로 하락), (Niephaus, 2003)
- 외부로 떠나는 이주민 증가(초기에는 연간 60만 명, 현재 연간 10만 명)
(Geißler, 2006)
- 마약 중독, 극우주의, 외국인 적대감 등은 구동독 시절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 현상이다. 극우주의에 의한 범죄 행위가 독일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연간 약 15,000건). 그 중 4개의 신연방주가 가장 높은 범죄 행위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Spiegel online)
- 범죄 행위는 현격히 증가했다. 전체 범죄는 2005년 서독 지역이 인구 10만 명 당 7,700건, 동독 지역이 8,000건에 달했다(출처: 경찰 범죄통계 2005)
- 독일에서 평균 자살률은 2003년에 인구 10만 명 당 13.5건이었다. 동독 지역의 자살률은 서독 지역에 비해 더 높다(1996년 인구 10만 명 당 서독 지역 14건, 동독 지역 18건). 전체적으로 자살률은 1980년 이후 동독과 서독 지역 모두 줄어들었다(24건에서 14건으로 하락). (출처: 연방통계청)

정신과/정신치료 쪽의 고객 양태를 보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소위 “조기 발달 장애”의 결과로 보여지는 경우였다. 구동독 아이들의 80% 이상이 일찍부터 어머니와 분리되어 탁아소에서 집단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인격 발달에 심대한 구조적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진찰 결과 구조적 약점, 자존감 저해, 애착 장애, 정체성 장애 및 의존성 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구동독에서 구조적 장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찰 결과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국가의 보살핌, 사회적 보호 및 정치적 체제와의 긴밀성 등을 통해 2차적 버팀목이나 보호 및 방향 설정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버팀목과 보호막이 전환기의 통일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오히려 서구적 삶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했다.

- 물질적 및 사회적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함.

- 엄청난 선택의 가능성 속에서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함.
- 시장에서 자기 PR을 할 줄 알아야 하며, 개인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함.

이로써 생존 불안, 대상 상실 불안 및 개인화 불안 등 억압된 사회주의 체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불안감이 발달 심리학의 발달 장애로 다시 활성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소위 “발달 장애”는 특히 생후 36개월 동안 어머니와 아이의 애착 관계에 장애가 발생한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인과적 모성 장애의 기술을 위해 “릴리트 콤플렉스”(Maaz, 2003)를 도입하였다. 고대 유대교에 전승된 창세기에는 이브가 아니라 “릴리트”가 아담의 첫 번째 부인으로 등장한다. 신은 아담과 릴리트를 같은 흙으로 창조했다. 이 창조의 행위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가치를 지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담과 릴리트는 권력 싸움에 빠지게 된다. 릴리트는 성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했고 이것이 아담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다. 그들은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릴리트는 에덴 동산에서 도망쳤다. 이 때문에 신은 릴리트를 벌하였고 그녀를 남자들을 유혹하고 아이들을 훔쳐가 죽이는 악마라 칭했다.

“릴리트”를 통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부정되고 금기시 된 중요한 여성의 특징 세 가지(여성의 동등권, 여성의 성행위 및 아이에 대한 거부감)가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결국 “릴리트”는 성경에서 추방되고 창조의 역사는 아담과 이브를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브는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되어 상징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고 부속된 존재로 묘사된다.

특히 모성의 제한은 매우 일반적인 소견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한데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머니상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어머니에게 온갖 욕구를 가지고 칭얼댄다. 따라서 모든 어머니는 이러한 아이들의 욕구를 모두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성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반려자이자 성생활 파트너이고 직업과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성의 제한은 피할 수 없으며 모든 아이들이 필연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는 경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의 제한에 대한 주장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모성은 신성시되거나 이상화되고 그 특별한 업적으로 인해 영웅화되는가 하면 여성 해방 운동 속에 평가 절하되기도 한다. 여성의 직업적 및 사회적 발전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잘못되고 거짓된 어머니상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발달 장애를 초래하며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모성 위협”

이러한 현상은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다음과 같을 때 발생한다.

“너는 아무 것도 아니야!”, “나가서 죽어버려!”

어머니가 원하지 않고 실제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아이는 정신적으로 생존의 당위성에 위협을 받는다(생존 불안). 이런 아이는 평생 동안 버팀목이나 보호, 지원이나 인도가 필요하다. 이는 정신분석 이론에서 경계선 증후군(borderline syndrome)이라 칭하는 것으로 위협의 경험을 주로 파괴적으로 발산하는 양상을 띤다. 한 사회에서 이러한 경계선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경우 집단 심리적으로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인종 말살, 전쟁 욕구, 비동조자 박해 등과 같이 파괴적인 이데올로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독일의 나치즘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2. “모성 결핍”

이러한 현상은 주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어머니의 경우 나타난다.

“너는 사는 것이 마땅해. 나도 너를 원해. 하지만 너를 정말로 사랑할 수는 없어. 너를 위한 시간이 없거든.”

중심적 불안 증상은 대상 상실에 대한 불안이다(즉,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이러한 증상의 사람들은 대체로 불안해 하고 열등 의식을 느끼며 자신은 사랑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여긴다. 또한 특별한 노력이나 성취를 통해서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내적 만족과 편안함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회에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모성 결핍의 집단 심리적 형태는 사회 체제의 수준에서 인식된다. 소수 민족, 노인, 병자, 장애인, 실업자, 사회 급여 수령자 등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지원을 받는가를 질문 해 보면 알 수 있다.

3. “모성 중독”

이러한 현상은 주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어머니의 경우 나타난다.

“너는 사는 것이 마땅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도 해. 하지만 네가 내 기대에 부응할 때만 나는 너를 좋아해.”

이때 아이는 개인화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어머니에게 종속된다. 어머니에게 종속된 아이는 평생 동안 자신을 인도해 주고 방향을 설정해 줄 존재를 필요로 한다. 이들은 외부로 향하고 타인이 자기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며, 암시를 통해 쉽게 조종할 수 있다. 자율성의 추구는 불안감을 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의 집단 심리적 형태는 고객이 지불 능력이 있을 때만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시장 경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생존 불안은 과거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평화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서독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 국가주의에 의해서 묶여 있었다.

대상 상실 불안의 경우 동독에서는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서독에서는 물질적 풍요

(경제 기적)로 인해 조정되었다.

개인화 불안은 동독에서 집단 생활과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에 의해, 그리고 서독에서는 시장 경제의 장밋빛 약속과 조작으로 묶여 있었다.

통일이 되면서 다수의 동독인은 그들의 불안을 묶어둔 사회 특유의 연결 고리를 잃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은 서구가 제시한 보상 형태로 전환하는데(외적 자유, 물질적 풍요, 사회적 의미 및 시장 경제에서의 성공) 성공하지 못했거나 그것이 불가능했다. 수년 동안 동독인들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외적으로 분주했고 정신이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소비, 여행, 정보 습득, 새로운 것 배우기와 실험해 보기, 직업 전환 교육, 향상 훈련, 법규나 새로운 관청 및 보험회사, 은행 등의 이용법을 익히느라 그들은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타협해야 했다. 이러한 것들이 통일 이후 사람들의 삶을 채웠고 그늘지게 했다. 새로운 것에 마음을 뺏기며 변화된 체제 속에 적응하느라 정신 못 차리던 시기는 지나갔다. 이에 따라 보다 심화된 정신 내재적 발달 장애 불안이 다시금 대두되는데, 이는 노년층에게는 특히 체념적이고 옛 향수를 불러내며 정신 신체적으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또한 젊은 층은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아무런 내적, 사회적 성숙 없이 나치의 거동을 흉내 내거나 미디어의 세계(PC, 인터넷, 게임 보이, 휴대폰)에 탐닉하거나 마약이나 극단적 극우주의에 빠지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2006년 사회 보고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독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토록 높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토록 낮게 나온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한다. 응답자 중 8%만이 자신의 삶이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했고 38%는 삶의 조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신연방주의 분위기는 저점에 도달했다. 부분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43%, 전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대답도 16%에 달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응답자의 불만족도가 높았다. 그 이유로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 사회

적 불평등 및 정치적 영향력의 미미함 등을 꼽았다. 응답자 대부분이 자유보다 안정성을 우선으로 꼽았다. 평가에서는 특히 1999년 이후 경제적 부의 손실(실업, 생활수준 평준화 과정의 속도 하락 및 사회복지 혜택 삭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장 긍정적 대답이 나온 것은 개인적 삶의 영역에 관련된 분야였다.

주거 만족도	74%
파트너 만족도	66%
자유 만족도	60%

사회 및 사회보장 분야에서 부정적 대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경제 상황 만족도	4%
사회적 동등권	4%
수입 및 물가 변화 만족도	4%
개인적 정치 영향력 만족도	5%
가족을 위한 생활 여건 만족도	10%
민주주의 만족도	10%

미래 희망에 대해 불만족한 사람의 수는 2000년 42%에서 2006년 20%로 줄어 들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 57%, 대졸자가 37%, 월 순소득이 2,000유로 이상인 사람들이 58%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에 반해 실업자는 67%, 기술직 42%, 50세-60세가 47%, 월 순소득이 1,000 유로 이하인 사람들이 52%로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동독인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경제 활동

미래의 취업 기회 및 승진 가능성

사회적 위신과 명성

민주주의에 대한 수용도는 관료주의로 인해, 시장 경제 수용도는 실업으로 인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 수용도는 개인적 무기력과 정당들의 평준화, 사회적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근본적인 희망의 부재로 인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동독 주민들 중 스스로를 “진정한 독일 국민”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22%에 달했다.

통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전환기의 승자 34%는 긍정적으로 통일을 평가하는 의견이 자리잡았다.
- 전환기의 패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30 - 56%).
- 통일에 대한 의견은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독일 통일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두 개의 경제 지역이 존재하며, 두 개의 직업교육 시장 및 노동시장, 두 가지 연금법 지역, 두 가지 임금 지역이 존재하고,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가치 구조와 현재 및 과거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존재한다. 동독인은 통일 후 사회에 통합되지 못했다. 그들이 “엘리트” 계층으로 나아갈 기회는 여전히 서독인에 비해 높지 않다.

독일 통일 정책의 두 가지 큰 실수는, 동독 주민의 일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과, 동독과 서독 간의 사회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라고 사료된다. 사회화

과정의 차이로 인해 서독의 삶은 단편적으로 이상화되었고, 동독의 삶은 평가절하되었다. 따라서 실업, 기회 불균등 및 동독인의 삶에 대한 심리적 평가절하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병적 효력을 발휘한 심리 사회적 요인이었다.

참고 문헌

- Geißler, Rainer (2006): Die Sozialstruktur Deutschlands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4. Auflage 2006
- Maaz, H.-J. (1990): Der Gefühlsstau – ein Psychogramm der DDR
Argon-Verlag, Berlin 1990 (ins Koreanische
übersetzt)
- Maaz, H.-J. (2003): Der Lilith-Komplex – Die dunklen Seiten
der Mütterlichkeit
Verlag C. H. Beck, München 2003 (ins
Koreanische übersetzt)
- Niephaus, Yasemin (2003): Der Geburteneinbruch in Ostdeutschland nach
1990
Leske + Budrich, Opladen, 2003
- Schluchter, W. und
Quint, P. E. (Hrsg.): Der Vereinigungsschock
Velbrück Wissenschaft, Weilerswirt, 2001

출 처: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5
Sozialreport 2006 – Daten und Fakten der sozialen Lag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ozialwissenschaftliches Forschungszentrum Berlin-
Brandenburg e.V., Berlin – Dezember 2006 (im Auftrag der Volkssolidarität)
Spiegel online: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457997,00.html>